

공무원 부패범죄의 추이 및 상관관계 분석연구 :

93~2012년 경제성장율, 국민소득, 물가지수, 평균임금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rrelation analysis and trends of the Korean bureaucratic corruption: Focused on from Kim Young Sam ex-president era to Lee Myong Bak regimes

안진한(An, Jin Han)* · 김 태(Kim, Taek)**

ABSTRACT

Corruption itself may seem to be iceberged model under sea and obscure stuffs. Considering corruption as one of the serious problems hindering transparent public administration development in Korea. Long tim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mbat and control the widespread corruption diseases in these countries. Unfortunately, there is no panacea for controlling corruption although it had been discussed by many scholars and politicians. Likewise, the effective and efficient anti-corruption strategies are significant and imperative.

This research paper is trying to cast light on corruption from many factors social index. Especially, economy Growth rate, price index, average wage, GNP index during from ex-president Kim Young Sam to Lee Myong Bak. Government regimes. The Co-author emphasize are as follows:

First, to Understand the influences of corruption which were various factors and index,

Second, to demonstrate each of GNP index and different interrelation under ex president,

Lastly, to suggest policy agenda that related with corruption index and patterns of bribery with regard to characteristics corruption, and to find out possible difference of the standard deviation under last Governments of Korea.

Key words: criminal civil service, dereliction of duty, abuse of official authority, bribery, Ex-president, integrity.

* 제1저자, 국회의원 보좌관

** 교신저자,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I. 서론

1. 연구목적

사회학자 막스베버는 관료제가 규칙을 통한 표준행정, 전문성, 문서행정, 계층제, 지휘 통솔이라는 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행정조직에 합리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많은 행정학자들은 관료제가 거대조직화, 인간성 상실, 전문화로 인한 무능 등의 역기능이 노출됐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탈관료제의 출현을 제시했다. 그래서 미래학자 토플러 등은 신속성, 수평적 의사소통, 문제해결의 타스크포스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같이 관료제는 시대환경의 변화와 변천에는 수정이 요구된다고 본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에도 관료들은 국민의 봉사자이고 책임이 요구된다. 관료는 법적 책임만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요구된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목소리, 반응, 기대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관료들은 그러한 윤리의식과 도덕관을 무장하고 전문성과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복잡다기한 현대행정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항상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한번 시험에 합격해서 만년 철밥통처럼 살아가는 관료들은 변화에 둔감하고 규제만 양산하려는 속성이 있다. 오늘날 현대행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 빠른 정책의제를 보여야 한다. 인터넷 등 전자정부시대에 굼뜬 행정처리를 한다면 비난받기 십상이다. 지난번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공직자들의 책임과 윤리의식이 매일 비난 받았고 언론을 통해 그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무책임, 부정부패 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 예로 엄숙해야 할 참사현장에서 라면을 먹는 행위라든지, 기념사진 찍기, 피해가족들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행태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해이와 무능이 드러나 대통령담화처럼 관료부패가 국가개조의 으뜸 순위가 되고 말았다. 조선시대 공직의 의미는 “나라의 일을 보면서 그 댓가로 임금이 하사하는 녹봉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국어사전에는 공무원을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과거나 오늘날에도 공직자는 “국가의 일을 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관료들의 책무를 벗어난 부패현상은 국민과 국가의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고 본다. 관료부패라는 것은 “한 국가가 법이라고 정해놓고 그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탈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공무원 범죄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법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탈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본 논문은 공무원 범죄에 있어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뇌물에 대한 세가지 형태의 범죄를 고찰하여 공직범죄의 상관성과 변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정권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상관된 변수(경제성장율, 국민소득, 물가지수, 평균임금)를 통해서 공무원 범죄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특이성과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공무원 범죄의 이론적 연구를 한 박봉진(2013)은 공무원 범죄의 원인은 공무원의 탈세묵인과 교육, 공무원의 투명성,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중수죄 관계와 연고주의, 뇌물 수취의 환경적 요인을 들고 있고 독립수사 기관 설치, 자진 신고와 고발의무의 부과, 부패고발자 신변보호와 보상, 돈세탁행위의 처벌 등을 해결 방안으로 피력하고 있다.¹⁾ 또 김택(2011)은 범죄의 요인으로 청탁구조적 요인, 제도적 요인, 문화적 관점에서의 요인, 공공 윤리적 관점에서의 원인을 두고 있으며 해결 방안으로는 정책적 방안, 공무원이 행정책임과 윤리의 확립방안, 지방 공직자 공복정신을 피력하고 있다.²⁾ 또한 연성진(2006)은 한국사회에서 공직 사회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지를 피력하고 첫 번째로 권력형 범죄의 위험성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두 번째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 공무원 범죄의 통제를 위해서는 사후 처벌보다는 먼저 사전 통제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네 번째로 지방자치제 아래에서 공무원의 범죄와 비리를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직 범죄는 강압적 사정으로 인한 근절보다는 자정과 도덕성, 윤리의식, 공동체의식의 고양을 통한 해결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³⁾ 또한 이규호(2012)는 공무원 직무범죄의 본질에 관한 연구에서 공무원의 범죄의 유형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뇌물죄로 나누어 각 유형별 범죄의 유형을 나열하였다.⁴⁾ 공배완(2008)은 국민소득이 향상될수록 사회갈등요인과 범죄가 줄어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범죄의 양상도 사회발전과 더욱 다양화·전문화되면서 발전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 현상은 사회발전과 범죄의 비례적 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이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⁵⁾ 전수일(1982)은 부패행위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은 뇌물수수행위라고 하며 뇌물행위는 어떤 사람이 정부 관료들로부터 바라는 바의 행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전이나 다른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뇌물은 필요한 행위의 전·후에 혹은 나누어서 지불되기도 한다. 뇌물행위는 대개 관여의 범위가 좁고 뇌물행위자의 수도 적고, 수수행위는 외부에 공개되는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1대 1로 행하여지는 수가 많다고 주장했다.

1) 박봉진(2013), “공무원 뇌물범죄와 대응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51, 381~407면.

2) 김택(2011), “지방의회 의원 윤리연구: 외국지방의회 제도의 윤리규정과 한국지방의원의 부패 비교연구”,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3) 연성진(2006),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63~165면.

4) 이규호(2012), 형법상 공무원 직무범죄의 본질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53(4), 한국사법행정학회, 61면.

5) 공배완(2008), 사회 변동에 따른 범죄의 행태적 변화에 따른 고찰: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범죄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 1면.

3. 연구방법

이번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부패유형을 검토하였다. 경제수준, 물가수준, 임금률 등 상관계수를 가지고 부패유형과 변천추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추이분석을 위해서 통계청의 공무원범죄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 정부의 특이성과 차이성을 판별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4개(평균임금, 물가지수, 경제성장율, 국민소득)인데 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을 의미하며 방법은 입력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사용한 통계기법은 중다선형 회귀분석의 분산분석인 변량분석, ANOVA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차이점, 시사점을 추출 하였다.

Ⅱ. 정권별 범죄 실태 및 사회 지수('93 ~ 2012년)

1) 김영삼 정권('93~'97)

김영삼 정권은 “문민정부”라는 구호 아래 화려한 출범을 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민주정치를 외치면서 문민정신을 정부에 전파하는 듯 한 분위기로 들어섰다. 군부 출신 정권이 아닌 최초의 민간인 정부라는 특징이 있고 3당이 합당되었고 대통령으로 추대되어 승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권으로서 초기에 개혁과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과 금융실명제 등을 법제화시켜 반부패 정책을 펼쳤고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여 지방화 시대를 이끈 정권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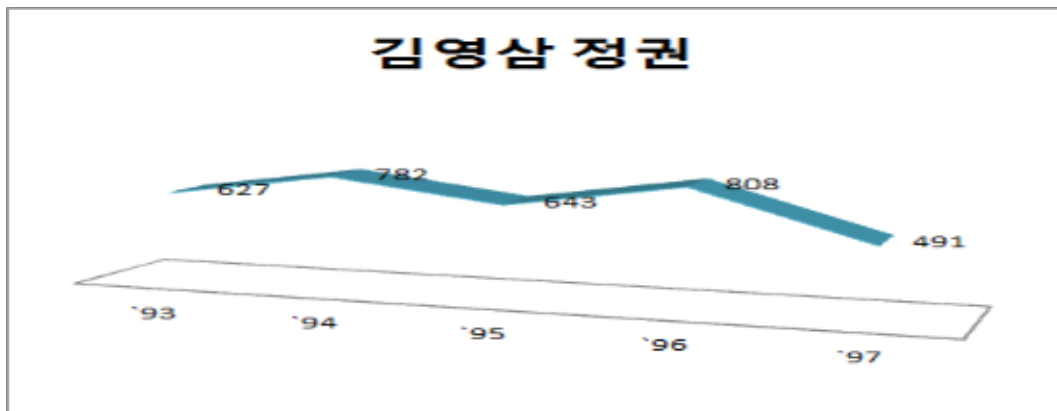
① 범죄 실태

김영삼 정권의 공무원 범죄 실태는 <표 1> 총 합계가 3,351건으로 평균 670.2건의 범죄 실태를 보였다. 범죄 건수가 '96년도에 808건으로 집권 중반기에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고 집권 말기인 '97년도에 491건으로 가장 적었다. 또, [그림 1]을 보면 전형적인 M자형 곡선형태를 띤다. 집권 초기에는 낮고 초중반에는 높게 나타나며 중반에는 다시 낮아졌다가 중·말기 때 가장 높고 말기에는 낮아지는 형태의 범죄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김영삼 정권의 범죄 실태⁶⁾

유형	정권	김영삼 정권('93~'97)						
	년도	평균	합계	'93	'94	'95	'96	'97
총계(건)		670.2	3,351	627	782	643	808	491
직무유기(건)		372.6	1,863	244	513	427	372	307
직권남용(건)		143.0	715	157	227	16	171	-
뇌물(건)		154.6	773	226	42	56	265	184

* 자료 : 국가통계포털(통계청) (2015) <http://www.kosis.kr>



〔그림 1〕 김영삼 정권의 범죄 실태

② 사회적 지수 현황

김영삼 정권의 사회적 지수는 <표 2> 물가지수는 5년간 합계 24.9%, 평균 5.0%이고 '94년도에 가장 높은 6.3%의 물가지수를 보였고 집권 말인 '97년도에 4.4%의 가장 낮은 물가지수를 보였다. 경제성장율은 합계가 35.5% 평균 7.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가장 높은 경제성장율은 '95년도에 9.2%라는 높은 지수를 만들었고 '97년도 집권 말기에 가장 낮은 4.7%를 기록했다. 국민소득은 합계가 49,332달러로 평균 9,866.4달러를 기록했고 가장 높은 국민소득은 '96년도에 11,385달러를 가장 낮은 년도는 '93년도 7,811달러를 기록했다. 드디어 1만 달러의 시대를 김영삼 정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평균임금은 합계가 7,029달러로 평균 1,415.8달러를 기록하였고 가장 높은 평균임금은 역시나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96년도에 1,566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가장 낮은 평균임금은 '93년도에 1,172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6) 집권 시기는 '93. 3~'98. 2월까지로 집계는 연도별로 집계했으므로 정권별로 보는 시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

〈표 2〉 사회적 지수 현황표

항목 \ 년도	평균	합계	'93	'94	'95	'96	'97
물가지수(%)	5.0	24.9	4.8	6.3	4.5	4.9	4.4
경제성장률(%)	7.1	35.5	6.1	8.5	9.2	7.0	4.7
국민소득(달러)	9,866.4	49,332	7,811	8,998	10,823	11,385	10,315
평균임금(달러)	1,415.8	7,079	1,172	1,273	1,458	1,566	1,610

* 자료 : 국가통계포털(통계청) (2015) <http://www.kosis.kr>

2) 김대중 정권('98~2002)

김대중 정권은 진보정권을 수립하는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시대였다. 오랫동안 집권당인 여당이 무너지고 야당이 집권을 하는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 여당(야당)이 또 다른 여당이 된 시기이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공동정부로 정치계의 두 거물이 합쳐져 집권을 하는 정권이 되었다. 내각 각료를 안배해 공동정부를 창출하고 새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로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활기찬 출범도 잠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접어들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전반에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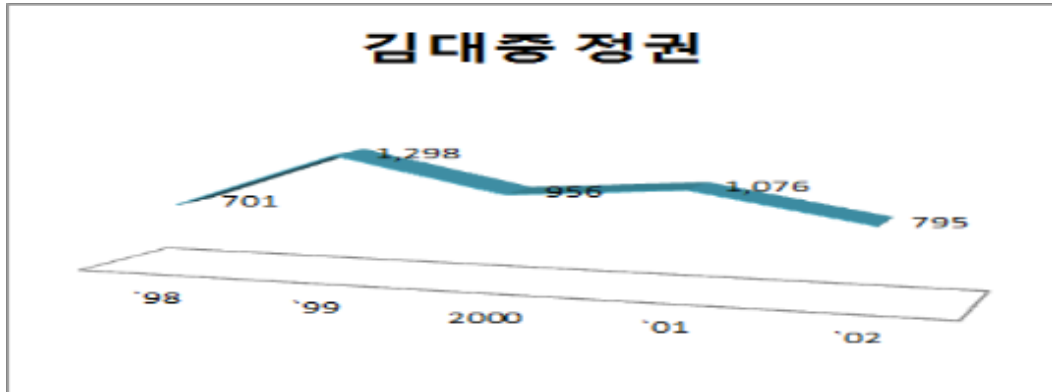
① 범죄 실태

김대중 정권의 범죄 실태는 <표 3> 5년간 합계가 4,826건으로 평균 965.2건의 범죄 실태를 보였다. 가장 범죄 수치가 높은 시기는 '99년도에 1,29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낮은 때에는 집권 초기인 '98년도에 701건으로 나타났다. 또, [그림 2]를 보면 김영삼 정권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M자 곡선의 형태지만 초중반기에 높게 나타났다가 IMF의 여파로 인하여 인지는 모르지만 중후반기에는 약하게 나타나 김영삼 정권과는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표 3〉 김대중 정권의 범죄 실태

유형	정권	김대중 정권						
	년도	평균	합계	'98	'99	2000	'01	'02
총계(건)		965.2	4,826	701	1,298	956	1,076	795
직무유기(건)		408.2	2,041	313	570	408	446	304
직권남용(건)		214.2	1,071	-	202	284	328	257
뇌물(건)		342.8	1,714	388	526	264	302	234

* 자료 : 국가통계포털(통계청) (2015) <http://www.kosis.kr>



〔그림 2〕 김대중 정권의 범죄 실태

② 사회적 지수 현황

김대중 정권의 사회적 지수는 <표 4> 물가지수는 5년간 합계 17.5%, 평균 3.5%이고 '98년도에 가장 높은 7.5%의 물가지수를 보였고 '99년도에는 0.8%의 가장 낮은 물가지수를 보였다. IMF의 여파가 연실히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율은 5년간 합계가 22.3% 평균 4.5%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가장 높은 경제성장율은 '99년도에 9.5%라는 높은 지수를 만들었고 '98년도 집권 초기에 가장 낮은 마이너스 성장인 -6.9%를 기록했다. 국민소득은 5년간 합계가 44,122달러로 평균 8,824.4달러를 기록했고 가장 높은 국민소득은 2002년도에 10,013달러를 가장 낮은 년도는 '98년도 6,744달러를 기록했다.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시대를 김영삼 정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IMF의 여파는 국민소득이 1만 달러로 가는 시대의 흐름을 막았다. 평균임금은 5년간 합계가 6,571달러로 평균 1,314.2달러를 기록하였고 가장 높은 평균임금은 2002년도에 1,485달러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가장 낮은 평균임금은 '98년도에 1,201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4〉 사회적 지수 현황표

항목 \ 년도	평균	합계	'98	'99	2000	'01	'02
물가지수(%)	3.5	17.5	7.5	0.8	2.3	4.1	2.8
경제성장율(%)	4.5	22.3	▲6.9	9.5	8.5	4.0	7.2
국민소득(달러)	8,824.4	44,122	6,744	8,595	9,770	9,000	10,013
평균임금(달러)	1,314.2	6,571	1,201	1,214	1,386	1,285	1,485

* 자료 : 국가통계포털(통계청) (2015) <http://www.kosis.kr>

3) 노무현 정권('03~'07)

노무현 정권의 국정과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가 정부의 3대 국정목표로 삼았다. 동원되는 국민이 아닌 참여하는 국민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민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분권화를 철저히 요구하여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적 발전, 노·사간의 새로운 협력체제, 교육 문화 복지 공공성 확대, 빈부의 격차 해소 등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2004년에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되어 직무가 정지되어 고건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사태까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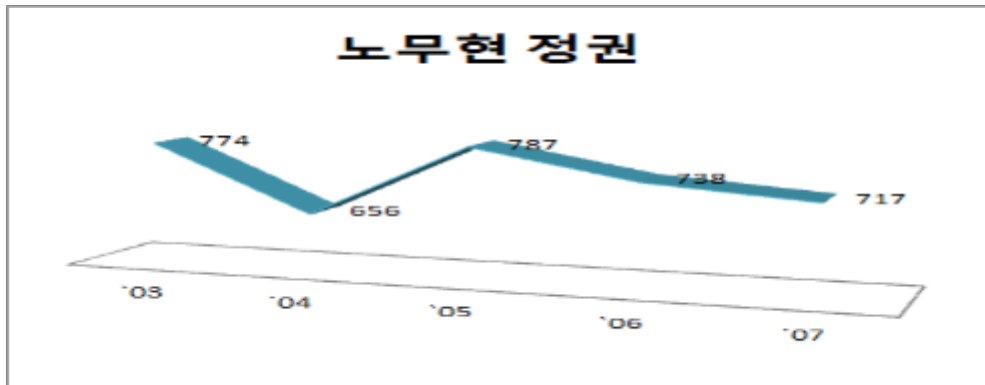
① 범죄 실태

노무현 정권의 범죄 실태는 <표 5> 5년간 합계가 3,672건으로 평균 734.4건의 범죄 실태를 보였다. 가장 범죄 수치가 높은 시기는 '05년도에 78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낮은 때에는 집권 초중기인 '04년도에 656건으로 나타났다. 또, [그림 3]을 보면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M자 곡선의 형태에서 벗어나 역 N자 곡선 형태로 형성되었다. 정권 초기에 높게 나타났다가 초 중기에 낮게 나타나 다시 중반기에는 증가하는 추세에서 있다가 중 말기로 가면서 감소하는 형태로 형성되었다.

<표 5> 노무현 정권의 범죄 실태

유형	정권	노무현 정권						
	년도	평균	합계	'03	'04	'05	'06	'07
총계(건)		734.4	3,672	774	656	787	738	717
직무유기(건)		371.2	1,856	349	304	445	378	380
직권남용(건)		225.2	1,126	296	196	174	218	242
뇌물(건)		138.0	690	129	156	168	142	95

* 자료 : 국가통계포털(통계청) (2015) <http://www.kosis.kr>



〔그림 3〕 노무현 정권의 범죄 실태

② 사회적 지수 현황

노무현 정권의 사회적 지수는 <표 6> 물가지수는 5년간 합계 14.6%, 평균 2.9%이고 '04년도에 가장 높은 3.6%의 물가지수를 보였고 '06년도에는 2.2%의 가장 낮은 물가지수를 보였다. 경제성장율은 5년간 합계가 21.7% 평균 4.3%의 낮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였다. 가장 높은 경제성장율은 '06년도에 5.2%의 지수를 만들었고 '03년도 집권 초기에 가장 낮은 2.8%를 기록했다. 국민소득은 5년간 합계가 82,470달러로 평균 16,494달러를 기록했고 가장 높은 국민소득은 '07년도에 20,946달러를 가장 낮은 년도는 '03년도 12,720달러를 기록했으며 1만 달러의 시대를 넘어 2만 달러의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가 되었다. 평균임금은 5년간 합계가 11,490달러로 평균 2,298달러를 기록하였고 가장 높은 평균임금은 '07년도에 2,893달러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가장 낮은 평균임금은 '08년도에 1,693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6〉 사회적 지수 현황표

항목 \ 년도	평균	합계	'03	'04	'05	'06	'07
물가지수(%)	2.9	14.6	3.5	3.6	2.8	2.2	2.5
경제성장율(%)	4.3	21.7	2.8	4.6	4.0	5.2	5.1
국민소득(달러)	16,494.0	82,470	12,720	14,162	16,291	18,351	20,946
평균임금(달러)	2,298.0	11,490	1,693	1,932	2,331	2,641	2,893

* 자료 : 국가통계포털(통계청) (2015) <http://www.kosis.kr>

4) 이명박 정권('08~'12)

김영삼 정권의 “문민정부”, 김대중 정권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과거의 답습이라는 형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대로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이명박 정권”이라 표현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작은 정부의 구축을 위하여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시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목표로 하였고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 자원외교, 친 서민 정책 등을 추구하였다. 한·미 FTA협약을 체결하여 지지율 하락이라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성공적 대처는 조기에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권의 최대 공약인 대운하 사업은 국민들의 반대로 4대강 사업이라는 형태로 축소하여 집권 시기에 완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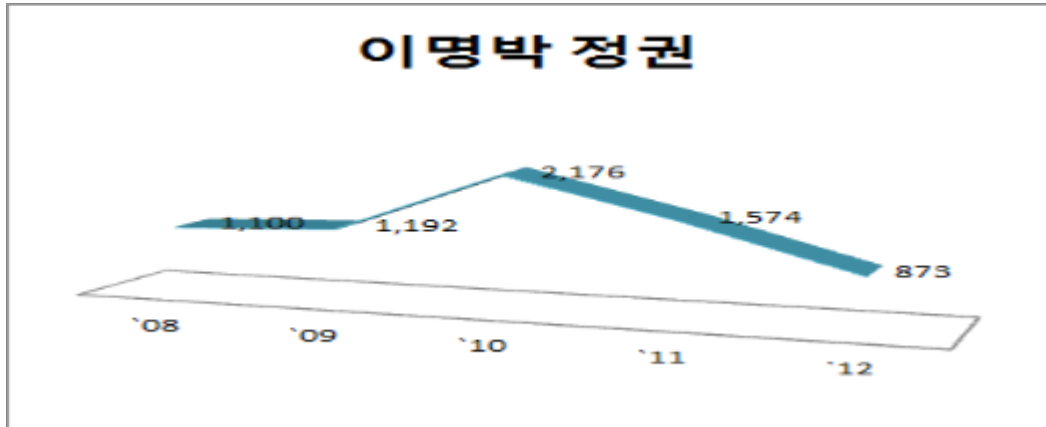
① 범죄 실태

이명박 정권의 범죄 실태는 <표 7> 5년간 합계가 6,915건으로 평균 1,383건의 범죄 실태를 보였다. 김영삼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의 범죄 실태를 살펴볼 때 가장 높은 실태를 엿볼 수 가 있다. 가장 범죄 수치가 높은 시기는 '10년도에 2,17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낮은 때에는 집권 말기인 '12년도에 873건으로 나타났다. 또, [그림 3]을 보면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과는 아주 색다르게 나타났다. M자 곡선, 역 N자 곡선의 형태가 아닌 갓 곡선의 형태로 형성되었다. 정권 초기에 상승하여 중반기에 높게 나타났다가 중말기로 가면서 낮게 나타나는 형태로 형성되었다.

<표 7> 이명박 정권의 범죄 실태

유형	정권	이명박 정권						
	년도	평균	합계	'08	'09	'10	'11	'12
총계(건)		1,383.0	6,915	1,100	1,192	2,176	1,574	873
직무유기(건)		605.6	3,028	591	603	896	662	276
직권남용(건)		349.2	1,746	327	335	401	439	244
뇌물(건)		428.2	2,141	182	254	879	473	353

* 자료 : 국가통계포털(통계청) (2015) <http://www.kosis.kr>



〔그림 4〕 이명박 정권의 범죄 실태

② 사회적 지수 현황

이명박 정권의 사회적 지수는 <표 7> 물가지수는 5년간 합계 16.7%, 평균 3.3%이고 '08년도에 가장 높은 4.7%의 물가지수를 보였고 '12년도에는 2.2%의 가장 낮은 물가지수를 보였다. 경제성장율은 5년간 합계가 14.9% 평균 3.0%의 낮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였다. 가장 높은 경제성장율은 '10년도에 6.3%의 지수를 만들었고 '09년도 집권 초중반기에 가장 낮은 0.3%를 기록했다. '08년도에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어 '09에 낮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였다. 국민소득은 5년간 합계가 109,934달러로 평균 21,986.8달러로 김영삼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의 기록을 훨씬 높게 기록했다. 이명박 정권시기의 가장 높은 국민소득은 '12년도에 24,696달러를 가장 낮은 년도는 '09년도 18,303달러를 기록했으며 2만 달러의 시대로 완전히 둔갑되었다. 평균임금은 5년간 합계가 10,506달러로 평균 2,101.2달러를 기록하였고 가장 높은 평균임금은 '08년도에 2,500달러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가장 낮은 평균임금은 '09년도에 1,695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7〉 사회적 지수 현황표

항목 \ 년도	평균	합계	'08	'09	'10	'11	'12
물가지수(%)	3.3	16.7	4.7	2.8	3.0	4.0	2.2
경제성장율(%)	3.0	14.9	2.3	0.3	6.3	3.7	2.3
국민소득(달러)	21,986.8	109,934	20,463	18,303	22,170	24,302	24,696
평균임금(달러)	2,101.2	10,506	2,500	1,695	1,967	2,123	2,221

* 자료 : 국가통계포털(통계청) (2015) <http://www.kosis.kr>

Ⅲ. 연구 설계 및 방법

공무원 범죄의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개념적 요소를 이론적인 개념을 토대로 나열한 것이며 사회의 전반적인 지수로 인한 공무원 범죄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형성될까를 분석하였다. 즉, 경제성장율, 국민소득, 물가지수, 평균임금을 독립변수로 두고 공무원 범죄의 수치를 종속변수로 선택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공무원 범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게 되었다.

1. 연구 설계 및 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종속변수를 공무원 범죄 수치로 놓고 독립변수를 경제성장율, 국민소득, 물가지수, 평균임금 4대 사회적 지수를 가지고 공무원 범죄와 어떤 상관관계가 성립되는가를 분석하고자 SPSS V.22 사회분석 시스템을 가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상관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각 변수들의 개념을 설명하고 데이터를 조사하여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변수들을 찾아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분석한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공무원 범죄를 유형별 즉,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독립변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한다.

세 번째로, 종속변수인 전체 합계를 내서 개별적인 유형별 분석과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비교 검토하는 절차로 분석한다.

1) 독립변수

① 경제성장율(Rate of economic growth)

경제성장율은 한 나라의 1년간 국내 총생산(GDP)의 증가율로 1년 동안 생산된 재화나 용역 총량의 증가 속도를 나타낸다. 독립변수의 하나로 20년간 발생 추이를 나타내 주고 있다. <표 8> 특이점은 '97년과 '98년에 IMF 위기를 겪으면서 '98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성장율은 점점 저성장으로 추락하고 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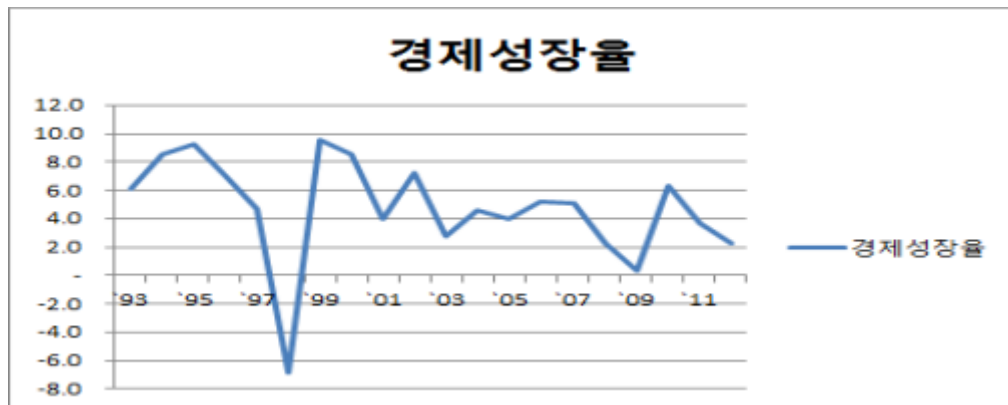
<표 8> 경제성장율('93~2012)

(단위 : %)

년도	평균	합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경제성	4.7	94.4	6.1	8.5	9.2	7.0	4.7	▲ 6.9	9.5	8.5	4.0	7.2	2.8	4.6	4.0	5.2	5.1	2.3	0.3	6.3	3.7	2.3

* 자료 : 국가통계포털(통계청) (2015) <http://www.kosis.kr>

'93년도에 6.1%의 경제성장률이 2012년도에는 2.3%로 '93년도 보다 1/3로 저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림 5] 경제성장률 그래프('93~2012)

② 국민소득(National income)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생산물의 흐름의 가치를 어느 일정기간을 두고 집계한 것을 말한다. 국민소득도 마찬가지로 IMF의 여파로 인해 '98년과 '99년에 잠시 주춤하게 된다. 그러다가 IMF가 끝난 후 다시 상승 곡선을 보이며 2012년도에 가장 상승하게 된다.<표 9>, [그림 9]

<표 9> 1인당 국민소득('93~2012)

(단위 : 천달러)

연도	평균	합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국민소득	14.2	284.9	7.8	8.9	10.8	11.3	10.3	6.7	8.5	9.7	9.0	10.0	12.7	14.1	16.2	18.3	20.9	20.4	18.3	22.1	24.3	24.6

* 자료 : 국가통계포털(통계청) (2015) <http://www.kosis.kr>



[그림 6] 국민소득 그래프('93~2012)

③ 물가지수(Price index)

물가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수라고 한다. 시중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을 뜻 한다. 물가는 IMF때 가장 급상승과 하락을 하는데 '98년도에는 급상승하며 '99년도에는 급하락되어 불안한 지수를 보이며 이후, 별 등락없이 평균을 유지했다. '12년도에는 2.2%로 가장 낮은 물가를 보였다.<표 10>, [그림 7]

〈표 10〉 물가지수('93~2012)

(단위 : %)

년도	평균	합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물가 지수	3.6	73.7	4.8	6.3	4.5	4.9	4.4	7.5	0.8	2.3	4.1	2.8	3.5	3.6	2.8	2.2	2.5	4.7	2.8	3.0	4.0	2.2

* 자료 : 국가통계포털(통계청) (2015) <http://www.kosis.kr>

[그림 7] 물가지수 그래프('93~2012)

④ 평균임금(Average wages)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등을 산출하는 기준임금으로 삼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1일”을 단위로 하여 산출하게 된다.

'93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역시 IMF 외환위기에 주춤거리다가 다시 증가하여 2009년도에 급하락 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표 11>, [그림 8]

〈표 11〉 평균임금('93~2012)

(단위 : 천 달러)

년도	평균	합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평균 임금	1.7	346	1.1	1.2	1.4	1.5	1.6	1.2	1.2	1.3	1.2	1.4	1.6	1.9	2.3	2.6	2.8	2.5	1.6	1.9	2.1	2.2

* 자료 : 국가통계포털(통계청) (2015) <http://www.kosis.kr>



(그림 8) 평균임금 그래프('93~2012)

2) 종속변수

① 공무원 범죄건수

공무원 범죄건수는 3가지의 유형 즉,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분석과 총계로 분석하였다.<표 12>

<표 12> 공무원 범죄건수('93~2012)

(단위 : 건수)

정권/년도 \ 유형	총계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평균	938.2	439.4	232.9	265.9
합계	18,764	8,788	4,658	5,318
김영삼 정권	'93	627	244	157
	'94	782	513	227
	'95	643	427	160
	'96	808	372	171
	'97	491	307	0
김대중 정권	'98	701	313	0
	'99	1,298	570	202
	2000	956	408	284
	'01	1,076	446	328
	'02	795	304	257
노무현 정권	'03	774	349	296
	'04	656	304	196
	'05	787	445	174
	'06	738	378	218
	'07	717	380	242
이명박 정권	'08	1,100	591	327
	'09	1,192	603	335
	'10	2,176	896	401
	'11	1,574	662	439
	'12	873	276	244

* 자료 : 국가통계포털(통계청) (2015) <http://www.kosis.kr>



〔그림 9〕 공무원 범죄건수 그래프('93~2012)

[그림 9]에서 나타나듯이 범죄건수는 '93년부터 큰 등락 없이 오다가 '98년~2002년 김대중 정권 때 약간 증가하더니 2008년 ~ 2010년 이명박 정권기에 급속히 증가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다.

IV.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실증분석 결과

1) 중다선형 회귀분석-입력방식(Enter)

〈표 13〉 입력된/제거된 변수^a

모형	입력된 변수	제거된 변수	방법
1	평균임금, 물가지수, 경제성장율, 국민소득 ^b	.	Enter

a. 종속 변수: 범죄건수

b. 모든 요청된 변수가 입력되었습니다.

<표 13>에서 입력된 변수는 4개(평균임금, 물가지수, 경제성장율, 국민소득)이다. 이것은 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을 의미하며 방법은 입력방식(Enter)이다.

〈표 14〉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1	.769 ^a	.592	.483	280.92039

a. 종속 변수: 범죄건수

하나의 모형이 있으며 예측변수는 상수, 평균임금, 물가지수, 경제성장율, 국민소득 4개이다. 즉 투입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련정도를 예측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4>의 R은 예측변수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공무원 범죄간의 적률상관관계(Pearson r)로 0.769은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려준다. 또 R제곱은 설명력 또는 결정계수라고 한다. 이는 상관관계의 제곱값으로 독립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비율이다. 즉 종속변수 도움정도의 59.2%가 표본회귀선에 적합한 것으로 독립변수인 프로그램평가에 의하여 설명되는 변량을 의미한다.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관계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수정된 R제곱 값으로 자유도를 고려하여 모집단의 결정계수를 추정할 경우 0.483이다.

〈표 15〉 분산 분석^a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1	회귀 분석	1716819.224	4	429204.806	5.439	.007b
	잔차	1183743.976	15	78916.265		
	총계	2900563.200	19			

a. 예측변수: (상수), 평균임금, 물가지수, 경제성장율, 국민소득

<표 15>는 중다선형회귀분석의 분산분석(변량분석, ANOVA) 결과이다. 분산분석의 영가설은 모집단의 회귀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이며, 이 영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이다. 즉, 회귀선에 포함된 분산(Regression)과 (잔차, Residual)분산의 크기의 비율을 비교하여 회귀선의 분산이 크다면 회귀선이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F값은 회귀선의 분산의 추정치는 429,204.806이며, 잔차의 분산의 추정치는 78,916.265으로 회귀선의 분산이 잔차분산보다 5.439배 더 크기 때문이고 유의수준 $p < 0.05$ 의 기준을 충족한다. 즉, 독립변수가 투입된 회귀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가설을 기각해도 오류는 $p < 0.05$ 에 불과하므로 회귀선의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계수^a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B	표준 오차	베타		
1	(상수)	790.773	478.983		.120
	경제성장율	44.128	32.502	.284	.195
	국민소득	.094	.022	1.410	.001
	물가지수	-32.359	45.784	-.128	.491
	평균임금	-.737	.222	-.981	.005

a. 종속 변수: 범죄건수

b. 예측 변수: (상수), 평균임금, 물가지수, 경제성장율, 국민소득

〈표 16〉을 보면 공무원 범죄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된 프로그램평가의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선은 공무원 범죄 = 경제성장율x + 국민소득x1 + 물가지수x2 + 평균임금x3 + A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위의 표에서 비표준화 계수의 B를 보면 상수로 y 절편(회귀식의 A)에 해당되는데 y절편은 B값 아래와 상수가 만나는 790.773이다. 이 때 $t=1.651$, $p<0.05$ 로 상수가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여준다.

독립변수들은 회귀선의 기울기(회귀식의 B)이다. 즉, 기울기는 B와 각각 독립변수들이 만나는 값들로 내용은 경제성장율은 44.128, 국민소득 0.094, 물가지수 -32.395, 평균임금 -0.737이다. 기울기의 크기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이다. 기울기가 클수록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정도가 커진다. 기울기가 -(음)이라면 변화의 방향이 반대로 독립변수가 증가할수록 종속변수는 감소하는 관계이다.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베타는 Z-점수로 표현될 때 즉, 표준화된 회귀계수로 흔히 표준화 계수라고 불린다. x, y값을 Z점수로 환산할 경우의 기울기이다. 중다회귀분석에서 여러 독립변수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경우 유용하다. 중다회귀에서 유의할 것은 비표준화계수에서의 크기가 크다고 영향력이 무조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독립변수의 단위에 의하여 비표준화계수의 기울기는 달라지는데, 현재 변수들로 쓰고 있는 경제성장율과 국민소득을 예로 들러 보면 경제성장율의 단위 3.5% 단 단위인데 국민소득은 만단위인 19,500달러보다 작기 때문에 국민소득의 비표준화계수에서의 기울기는 경제성장율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울기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영향력이 큰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단위 자체의 특성에 의하여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측정치나 다른 단위의 회귀계수의 크기 비교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계수를 이용하여 비교하게 된다.

표준화된 계수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국민소득으로 1.410으로 기울기가 나타났다. 평균임금의 경우 -0.981로 상대적으로 높다. 경제성장률 0.284, 물가지수 -0.128로 각각 나타났다.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영향력이 0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이다.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독립변수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지수는 종속변수인 공무원 범죄와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은 각 상수와 기울기에 대한 T검정을 통하여 유의도를 검정한다. 상수는 0.05이하의 유의수준이기 때문에 유효하며 독립변수 중에서는 국민소득과 평균임금의 유의도가 $p < 0.05$ 의 유의수준을 가지므로 이 두 개의 변수만이 종속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수준이 0.05이상으로 회귀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즉 영향력이 없다는 영가설이 맞아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2) 중다선형 회귀분석- 단계선택 방식(stepwise)

중다선형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를 그대로 적용한 단계선택 방식을 이용한 회귀분석의 방식이다. 단계선택 방식은 입력 방식과 달리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모델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유용한 방식으로 기초조사나 탐색적 성격이 있는 연구에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입력방식과 단계선택 방식으로 같은 변수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해 입력 방식과 단계선택 방식이 어떻게 분석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표 17〉 입력된/제거된 변수^a

모 형	입력된 변수	제거된 변수	방 법
1	국민소득	.	단계적(기준: F-to-enter의 확률 $\leq .050$, F-to-remove의 확률 $\geq .100$).
2	평균임금	.	단계적(기준: F-to-enter의 확률 $\leq .050$, F-to-remove의 확률 $\geq .100$).

a. 종속 변수: 범죄건수

〈표 17〉은 단계선택 방식으로 다단계 투입의 조건과 각 투입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첫 번째 모델은 공무원 범죄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최적화된 하나의 독립변수를 찾아준다. 첫 번째 모델은 국민소득이라는 독립변수 하나가 투입되었는데 이 조건은 F값에 의한 유의수준이 $p < 0.05$ 를 충족시키면 투입되고 0.1이상이면 제외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두 번째는 평균임금이 투입되었다.

〈표 18〉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1	.476a	.226	.183	353.07274
2	.720b	.518	.461	286.79230

a. 예측 변수: (상수), 국민소득

b. 예측 변수: (상수), 국민소득, 평균임금

〈표 18〉은 단계선택 방식으로 다단계 투입된 독립변수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으며, 각 모형별로 상관관계와 설명력을 제시한다. 가령 예를 들어 a. 예측변수:(상수), 국민소득이라고 되어 있는 모형은 독립변수로 국민소득 하나만을 투입하였을 경우의 상관관계와 설명력이 얼마인지 알려준다. b. 예측값:(상수), 국민소득, 평균임금은 국민소득, 평균임금 순으로 독립변수가 투입되었을 경우의 상관관계와 설명력이다.

첫 모형에서의 설명력은 0.226이었으며, 두 번째 모형의 설명력은 0.518로 투입되는 독립변수가 많을수록 설명력은 증가하지만 한 독립변수당 설명력은 감소하게 된다. 즉, 첫 번째 모형은 한 독립변수당 평균 영향력은 0.226이지만, 두 번째 모형의 겨우 0.259로 평균 영향력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분산 분석^a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 수준
1	회귀 분석	656,676.69	1	656,676.69	5.27	0.034b
	잔차	2,243,886.51	18	124,660.36		
	총계	2,900,563.20	19			
2	회귀 분석	1,502,316.17	2	751,158.08	9.13	0.002c
	잔차	1,398,247.03	17	82,249.83		
	총계	2,900,563.20	19			

P < 0.05

a. 종속 변수 : 범죄건수

b. 예측 변수 : (상수), 국민소득

c. 예측 변수 : (상수), 국민소득, 평균임금

<표 19>은 단계선택 방식으로 다단계 투입할 경우 각 모델별로 F검정을 한다. F검정 결과 위의 <표 19>의 모델 1과 모델 2의 2가지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표 20> 계수^a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B	표준 오차	베타		
1	(상수)	485.445	212.478		2.285	.035
	국민소득	.032	.014	.476	2.295	.034
2	(상수)	1016.782	239.263		4.250	.001
	국민소득	.085	.020	1.274	4.239	.001
	평균임금	-.724	.226	-.964	-3.206	.005

P < 0.05

a. 종속 변수: 범죄건수

<표 20>은 단계선택 방식으로 다단계 투입할 경우 각 모델별로 T검정을 통하여 유의미한 회귀계수를 찾아낸다. 단계선택 방식에서는 자동으로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내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델2를 살펴보면 2가지 독립변수만을 투입했을 경우의 회귀계수를 구해 준다. 이 2개의 독립변수와 공무원 범죄인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최적화된 모델로 볼 수 있다.

<표 21> 제외된 변수^a

모형		베타 IN	t	유의수준	편상관	공선성 통계
						허용 오차
1	경제성장율	.314 ^b	1.227	.236	.285	.640
	물가지수	-.107 ^b	-.469	.645	-.113	.858
	평균임금	-.964 ^b	-3.206	.005	-.614	.314
2	경제성장율	.307 ^c	1.513	.150	.354	.639
	물가지수	-.167 ^c	-.912	.376	-.222	.849

P < 0.05

a. 종속 변수: 범죄건수

b. 모형의 예측변수: (상수), 국민소득

c. 모형의 예측변수: (상수), 국민소득, 평균임금

<표 21>는 제외된 변수들을 알려준다. 모델 1에서는 경제성장율, 물가지수, 평균임금이 제외되었으며, 모델 2에서는 경제성장율, 물가지수가 제외되었다. 이 중 공선성 통계량은 다중공선성분석으로 허용도인 허용도의 공차가 0.1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시사점

1) 국민소득

분석결과를 보면 <표 22> 국민소득으로 인한 관계가 밀접함을 알 수 있다. 입력 방식이나 단계선택방식으로 2가지의 형태로 분석하면 상관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독립변수 중 국민소득에 대한 지수를 보면 비표준 계수의 B를 보면 0.04의 양의 값을 가지며 유의수준이 0.001($P < 0.05$)로 종속변수인 공무원 범죄와 많은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표 22> 계수^a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B	베타		
1	(상수)	790.773		1.651	.120
	경제성장율	44.128	.284	1.358	.195
	국민소득	.004	1.410	4.344	.001
	물가지수	-32.359	-.128	-.707	.491
	평균임금	-.737	-.981	-3.314	.005
R 제곱		0.592			
수정된 R 제곱		0.483			
F 값		5.439			

a. 종속 변수: 범죄건수

b. 예측 변수: (상수), 평균임금, 물가지수, 경제성장율, 국민소득

2) 평균임금

<표 22>를 보면 비표준 계수 B를 보면 -0.737로 음의 값을 가지며 유의수준이 0.005 ($P < 0.05$)로 종속변수인 공무원 범죄가 줄어드는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3) 국민연금과 평균임금

중다선형 회귀분석(입력방식, 단계선택방식) 결과로 볼 때 B값이 양의 값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공무원 범죄도 증가하고 국민소득이 하락할 때는 공무원 범죄가 하락하는 비례적인 형태의 분석으로 나왔다. 평균임금은 B값이 음의 값으로 임금이 상승할 때 공무원 범죄는 감소하고 임금이 하락할 때는 공무원 범죄는 상승하는 반비례적인 분석이 나왔다.

V. 결 론

이 논문은 4가지의 독립변수 즉 사회적 지수(경제성장율, 국민소득, 물가지수, 평균임금)와 ‘공무원 범죄(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와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분석 시스템은 SPSS V.22의 시스템을 가지고 중다선형 회귀분석으로 입력방식과 단계선택방식으로 분석하게 되었다. 종속변수인 공무원 범죄 실태와 독립변수들인 사회적 지수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지수를 획득하여 적용한 숫자들이다.

본 논문을 통해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지수인 국민소득은 소득이 증가할 때 범죄도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과 평균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공무원범죄가 증가하고 국민소득이 하락할 때 공직범죄가 하락하였다. 그러나 평균임금이 증가할 때는 범죄는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드러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공무원 범죄에 미치는 요인이 국민소득이나 임금 외의 다른 요인이 무엇인지 이들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태년.(2014), 『서울시 공무원범죄 현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찰대학.(2002), 『범죄학』
- 김 태.(2011), 『지방의회 의원 윤리연구:외국지방의회 제도의 윤리규정과 한국지방의원의 부패 비교
연구』, 아산재단연구보고서, 아산사회복지재단
- 공배완.(2008), “사회 변동에 따른 범죄의 행태적 변화에 따른 고찰:1970년대 이후 한국 범죄 변화 추
이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 1면.
- 박봉진.(2013), “공무원 뇌물범죄와 대응방안”, 『법학연구』 51, 한국법사회 383면.
- 서윤기.(2014), 『서울시 공무원범죄 현황』, 서울시 감사관실
- 유종해·김택(2011), 『행정의 윤리』, 박영사
- 이규호.(2012), 한국법사회형법상 공무원 직무범죄의 본질에 관한 연구한국법사회, 사법행정53(4), 한국
사법행정학회, 53(4), 61면.
- 연성진.(2006), 한국법사회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Ⅱ)한국법사회,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63~165면.
- 지광준.(2003), 『범죄학, 경인문화사』, 471~472면.
- 전수일.(1982),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한국관료와 시민의 행태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
문.
- 정용기.(2014), 『경찰공무원 범죄유형』, 경찰청
- 한국행정연구원.(2006),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패문제 해소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인터넷 자료

- (1) 네이버 <http://www.naver.com>
- (2)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3) 국가통계포털(통계청) <http://www.kosis.kr>

기타

형법

투고일자 : 2015. 11. 25

수정일자 : 2015. 12. 29

게재일자 : 2015. 12. 31

<국문초록>

공무원 부패범죄의 추이 및 상관관계 분석연구 :

93~2012년 경제성장율, 국민소득, 물가지수, 평균임금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안진한 · 김 태

역대정권마다 발생하고 있는 부정부패는 정권마다 그 유형이나 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범죄 빈도나 실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권마다 국정의 제일의 과제로 여기며 반부패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공직부패는 수면하에 잔뜩 엮드려 숨을 고르고 있는 형태로 있다가 다시 출현하고 하는 등 발본색원은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신뢰도가 2014년도 기준 OECD국가 32개국 중 29위에 해당된다고 한다. 국가의 신뢰도는 그 나라의 청렴도와 같다고 생각한다. 신뢰와 청렴은 어떤 정권이든지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본 논문은 김영삼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공무원 범죄 추이를 파악해서 사회적 지수(경제성장율, 국민소득, 물가지수, 평균임금)를 변수로 두고 이 사회적 지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관계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결과를 통하여 공무원 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본다.

먼저 김영삼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까지의 공무원 범죄 추이를 살펴보면 김영삼 정권때보다 이명박 정권때가 훨씬 많은 공무원 범죄가 발생했는데 상대 변수인 국민소득과 평균임금도 김영삼 정권때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났다. 결국 국민소득이 높아지더라도 공무원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소득과 부패와는 상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공직부패의 추이분석 등을 인용하여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대 정권별 범죄 유형을 고찰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공무원 범죄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의 유형을 변수로 측정하여 고찰하였다.

주제어: 공무원 범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신뢰도, 청렴도